

평일 오전, 찬거리 장만 ‘활기’… 정부 정책에 소비심리 부흥

Q 르포 | 서울시내 대형마트·가전매장 가보니

“싼데 왜 안 사. 살 수 있을 때 사야지”

평일 오전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 한마트에는 장보기에 바쁜 중장년층들로 활기가 돌았다. 마트에서 만난 김 모 씨(72)는 찹쌀떡을 이리저리 뜯어보며, 싱싱한 원물을 찾기 바빴다. 그 옆에 함 모 씨(75) 역시 파프리카 원물을 신중하게 골라 봉지에 담았다. 두 소비자 모두 저녁 밥상거리를 둘러보려 마트에 방문했다고 답했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 4월(94), 5월(102), 6월(109)로, 3개월 연속 오름세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 대상 경제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한 수치로, 100을 상회하면 경제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심리가 낙관적임을 뜻한다.

소비심리 회복세 배경으로 정부의 지원 정책이 거론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소비심리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 업계가 주목하는 대표적인 게 ‘민생회복 소비

소비심리지수 3개월 연속 상승

매장내 HMR 보양식품 프로모션
간편식삼계탕 등 초복수요 겨냥

“소비심리 부흥하는 것, 반가운 일
유통사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을”

쿠폰 지원 사업’과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라며 “특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경우 사용처를 놓고 이견이 많은데, 해당 정책이 전반적인 경기 회복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다”고 전했다.

◆초복 돌입… 보양 여름 식품 마케팅 ‘활발’

유통가는 이 같은 흐름에 따라 기존 주력 분야였던 식품에 더해 가전제품으로 프로모션 영역을 넓히며 고객 확보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날 둘러본 롯데마트 매장 내에는 간편조리식품(HMR) 형태의 보양식 식품들이 크게 진열돼 있었다. 이 외에도 대게, 전복 등 수산 보양식 할인 행사



15일 한 서울시내 대형마트 매장 안에서 중장년층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도 함께 진행됐다. 무더위 속 기력 회복을 원하는 고객들의 수요를 겨냥하고자 나선 것이다.

이마트 역시 이달 17일부터 20일간 ‘간편식 삼계탕’, ‘생닭 두마리’ 등 상품 구성을 중심으로 초복 수요 잡기에 나선다. 계속되는 생닭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 전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예정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 외에도 GS25·CU·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 역시 HMR 간편 보양식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초복수요 잡기에 동참하고 있다.

◆갤럭시Z 사전예약에, 대소형 가전 마케팅도

전자 및 가전제품 마케팅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이마트는 삼성전자가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Z’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하는가 하면, 정부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등 삼성, LG 대형가전을 중심으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롯데백화점도 가전제품 환급 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 31일까지 일정 금액 가전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롯데상품권을 제공한다. 쿠팡 등 온라인



15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 매장에 소비심리 쿠폰 사용처 포스터가 붙어 있다.

/안재선 기자

유통업계도 가전 마케팅에 가세했다. 쿠팡은 일부 제품에 카드사별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최고 등급인 가전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최대 10%를 환급해 주는 정부 주도 사업이다.

소비자 박 모 씨(32)는 “소비심리가 부흥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 “앞으로 유통기업의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다양한 제품을 더 실용적으로 살 수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삼성전기, AI서버·전장시장 저격… MLCC개발 올인

이민곤 MLCC 개발팀 상무
“두 시장에 전체역량 70% 이상 투입”
고부가 제품 중심 수익성 확대 속도

삼성전기가 전자산업 핵심 부품인 적층세라믹캐패시터(MLCC)를 ‘더 작고 강하게’ 진화시키며 고성장이 기대되는 AI 서버와 전장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기술 장벽이 높은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며 수익성과 시장 지배력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민곤 삼성전기 MLCC 개발팀 상무는 14일 서울 태평로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열린 기술 학습회에서 “AI 서버와 전장에 필요한 고신뢰·고용량 MLCC 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두 시장에 전체 역량의 70%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MLCC는 전기를 저장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부품이다. 반도체와 센서 등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전자산업의 필수품으로, ‘전자산업의 쌀’이라 불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0월 필리핀 라구나주 칼람바시에 위치한 삼성전기 필리핀법인을 찾아 MLCC 제품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노트북, 무선이어폰은 물론 전기차와 서버에도 수백 개에서 수만 개까지 탑재된다. 최근에는 AI 서버와 자율주행차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신뢰성과 내구성이 요구되면서, MLCC는 ‘두뇌’ 역할까지 하는 핵심 부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스마트폰 한 대에는 약 1100개의 MLCC가 들어가지만 AI 서버에는 2만8000

개, 전기차에는 2만~3만 개가 탑재된다. 자율주행이 1단계에서 3단계로 진화할 경우 필요한 MLCC 수량은 600개에서 6000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5단계 차량에는 수만 개의 고성능 MLCC가 요구된다.

이 상무는 “전장용 MLCC는 IT 제품보다 개발 기간이 3배가량 길고 가격도 3배 이상 높다”며 “자율주행 시스템

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에선 안정성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AI 서버는 전력 소모와 발열이 크기 때문에 고내열·고용량 MLCC의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이 시장에서 40%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며 일본 무라타와 함께 선두를 달리고 있다.

MLCC를 담당하는 컴포넌트사업부는 삼성전기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다. 삼성전기는 고온과 고전압 등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한 제품을 앞세워 고부가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기는 수원과 부산에서 연구개발과 소재 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 톈진과 필리핀 칼람바에 대량 양산 기지를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필리핀 공장 증설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MLCC는 자치만 기술 장벽이 높은 부품”이라며 “삼성전기가 AI와 자율주행 시장을 겨냥해 수익성과 기술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

APEC 10월31일 개최

李 대통령, 회원국에 초청 서한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20곳에 경주 APEC 정상회의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오는 10월31일부터 11월1일 열릴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0개 APEC 회원국 정상들에게 금년도 APEC 정상회의가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대한민국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며, 정상회의에 회원국을 초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어제(14일)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초청 서한에서 APEC이 지난 30여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에 기여해왔음을 높게 평가하며 “올해에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연결성 강화 ▲디지털 혁신 진전 ▲변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런 논의가 정상회의를 통해 결실을 맺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APEC 정상회의에 앞서, 10월 마지막 주간에 APEC 최고 고위관리회의,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를 개최해 APEC 정상회의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이와 병행해 APEC 기업인사문위원회,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도 함께 열린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비서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령실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상회의 일정과 인프라, 의제, 부대행사, 문화행사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

금융 정책-감독 분리 ‘금융위 개편’ 실현되나

국정위, 대통령에 조직개편 초안 보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 초안이 대통령실에 보고된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부분과 금융감독 부분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이 실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

부조직개편안 초안을 보고했으며,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는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인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정위의 정부조직개편TF(태스크포스)는 금융위원회의 기능 분리와 관련해 ▲금융위의 금융정책 총괄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 ▲금융위 감독정책 기능, 금융

감독원의 감독집행 기능을 합친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금감원 내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 및 감사권 부여 등을 골자로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건

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이 맡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이 맡도록 하는 감독체제로 구상됐다.

정부가 금융위 기능 분리를 추진하는 이유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어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하게 만들고, 금융감독 기능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